

A. Smith

2025.05.09.

6) 자유주의 국가

① *the obvious and simple system of natural liberty*

- **자연적 자유** : 모든 개인이 정의의 법들을 위배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방식대로 추구하게끔 자유롭게 놓아둔다.
- 개인들이 각자 **natural liberty**를 발휘한다면 'invisible hand'에 의해 **natural harmony(order)**가 달성됨. 개인과 사회전체 간의 조화
→ 자유방임주의(laissez faire) 국가 혹은 자유주의 국가
- “따라서 차별의 시스템이든 규제 시스템이든 모두 완전히 철폐하면, 자연적 자유(natural liberty)라고 하는 **자명하고도 단순한 시스템**이 저절로 스스로를 확고하게 뿌리박도록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스스로의 이익을 스스로의 방식으로 추구하고, 자신의 근면 및 자본을 모두 동원하여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신분 및 집단의 근면 및 자본과 경쟁하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놓일 것이다.”

② 자유(방임)주의 국가

- **경쟁과 노동이동의 제한 철폐**

① 독점반대 : 동인도회사, 길드 독점 등

→ 국부론 중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상인들은.....일단 모일 경우, 항상 소비자들을 우롱할 술수나 가격상승의 담합 따위로 귀결된다.”

② 노동이동의 자유: 정주법(law of settlement), 도제법(Statute of Apprenticeship) 등 폐지 주장

• 중상주의 비판

① 자유무역주의 주창

- 스미스는 수출이 협소한 국내시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산력 개선의 효과를 갖는다는 측면을 강조하였음. 스미스는 절대우위론에 기초한 완전특화(perfect specialization)를 주장하였음.

<표 1> 국가별 필요노동량

	직물	포도주
영국	80 단위	120 단위
포르투갈	90 단위	80 단위

- 기본적으로 노동가치론에 입각하므로 노동만을 고려함. 영국은 직물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 국가이고, 포르투갈은 포도주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음.
- 영국은 합 200 단위의 노동을 모두 직물에 투입해야 함. 그러면 $200/80=2.5$ 만큼 직물을 생산함.
- 포르투갈은 합 170 단위의 노동을 모두 포도주에 투입하면 $170/80=2.125$ 만큼 포도주를 생산함.
- 그러므로 분업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며, 각자의 생산량을 적절한 비율로 나눠 갖게 되어 서로 이득이 됨. 따라서 전체의 직물과 포도주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어 국부가 증가하게 됨.

→ 그런데 만약 한 나라가 모든 재화에 절대 우위를 가진다면?

<표 2> 국가별 필요노동량

	직물	포도주
영국	80 단위	80 단위
포르투갈	90 단위	120 단위

- 이 경우, 포르투갈은 아무것도 생산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 그러므로 한 나라가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질 때, 이론이 성립하지 않음. 이것이 스미스의 절대우위설의 한계임. 스미스는 비교우위론까지 논의를 확장시키지 못하였음. 현재 국제무역이론의 기초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임.

⑥ 보호관세 및 보조금 지급 비판

→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데는 반대

③ 정부의 3가지 기능: 국방(military service), 정의(사법), 공공사업

- 공공사업 : 은행권(paper money banking)규제, 교통, 특허 및 면허, 반고리대(anti-usury)법, public education

④ 조세의 4원칙: 공평(equal), 투명(certain), 편의성(convenient), 비용절감(economical)

7) 스미스 경제 사상에 대한 평가, 그 이후

① 스미스와 고전파

-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자유방임주의 원리는 사상체계의 초석이 되었음. 자유방임주의 원리(경쟁)과 노동가치 이론은 고전파 경제학의 가르침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임.

② 스미스 경제사상에 대한 평가

- 레이거노믹스(supply-side economics) : 보수주의자인 레이건의 경제사상
- 대처주의(Thatcherism) : 마가렛 대처, "사회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축소 외에는 대안이 없다. 어떻게 시장만 존재하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응답

③ 경제학의 두 가지 흐름

① 스미스 → 발라스 (일반균형이론) - mainstream

: 'the invisible hand'에 의해 조화로운 균형으로 간다고 설명.

: 1870년대 이후 신고전학파로 들어와서 균형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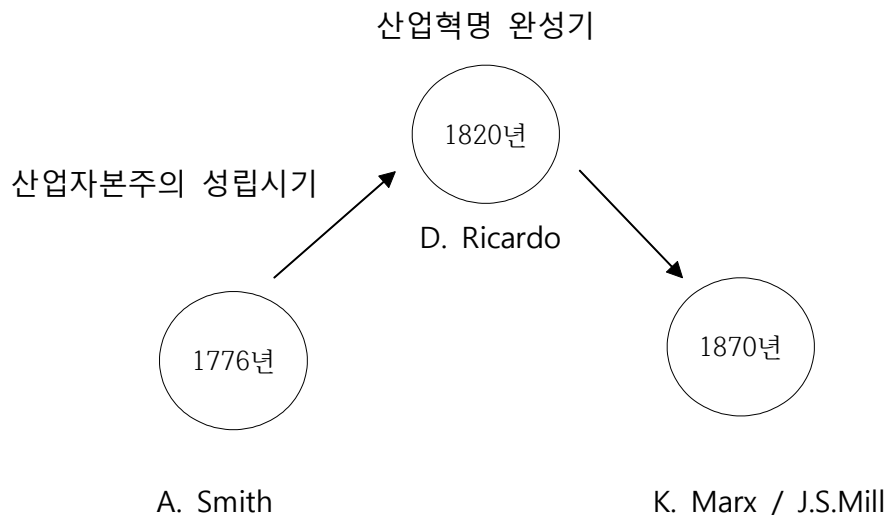
② 맬서스, 마르크스, 케인즈 (불균형 강조)

: 위 세 명의 정치적 성향은 상당히 차이나지만, 모두 불균형을 주장하는 인물들임.

D. Ricardo

2025.05.09.

1. 시대적 배경



2. 생애

- 스페인계 암스테르담 거주 유대인 가계
- 런던의 The City의 5대 주식중개인 가문의 3남
- 11세부터 2년 간 암스테르담 Rabbi 학교에서 교육을 받음. 14세부터 부친 아래에서 주식중개인 수련을 받음.
- 21세에 Quaker 교도와 결혼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의절 당함. 독자적으로 주식 중개업 시작
- 1814년(42세) 은퇴
 - 1815년에 70만 파운드의 자산을 가지고 증권 사업에서 손을 떼었음.
 - 리카도가 증권에서 손을 뗄 때, 신임하는 친구이며 급진적 경제학자인 제임스 밀이 그에게 의회의원이 될 것을 권유함.
- 1819년~1823년 하원의원. 아일랜드 선거구 포르타링턴을 대표함.
- 1823년 뇌질환으로 사망

- **경제학 연구 경력 : 1809년~1823년(37~51세)**

- ✓ **신혼 초 휴양지에서 처음 국부론을 읽음(27세, 1799년)**

- ✓ James Mill의 독려(1808년 리카도와 교류 시작), James Mill의 권유로 1810년, 1815년, 1817년 저술을 시작하고 또 의회에 진출

- ✓ 맬서스와는 correspondences

- 맬서스와 가까운 친구였으며 항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토론을 했음.

- 이들이 의견을 달리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는 자본가와 지주 사이의 갈등

- **주요 저작**

- ✓ **1810년 지금의 고가격, 은행권 감가의 증거(*The high price of Bullion, a Proof of the Depreciation of Bank-note*)**

- 리카도는 1809년 지금 논쟁에 관한 신문논평 기사로 경제학계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림. 이 기사는 이후『지금의 고가격, 은행권 감가의 증거(*The high price of Bullion, a Proof of the Depreciation of Bank-note*)』란 제목의 팸플릿으로 출판 됨.

- 여기서 다룬 문제는 나폴레옹 전쟁에 따른 물가상승문제를 영란은행 은행권의 통화남발 때문임을 지적함. 광범위한 일반화로 시작해 그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로 증명하고자 함.

- ✓ **1815년 낮은 곡물가격이 자본의 이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론, *Essays on the Influence of a Low Price of Corn on the Profits of Stock: Showing the Inexpediency of Restrictions on Importation***

- James Mill의 독려와 교정

- 리카도의 소득분배이론의 핵심을 포함함.

- 분배이론의 본질적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전개함.

- ✓ **1817년 *On the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 1817년의 저작은 노동가치론의 토대 위에서 1815년의 주장을 보다 치밀하게 되풀이함.

3. 방법론

① 추상적 방법

- ✓ 편견이나 선입관으로부터 자유로운 객관적인 system of thought를 추구
- ✓ 추상적 연역, 강한 가정
- ✓ 단기 현상보다는 장기추세 설명에 적합
- ✓ Schumpeter의 Ricardian Vice : 강한 가정을 이용한 단순한 모델로 복잡하기 짝이 없는 실제 문제의 답을 구하는 폐습 (리카도적 악습)
 - 강한 가정을 통해 large bundle of fact를 냉동(현상의 단순화), frozen facts
 - 핵심변수들만 남겨놓는다.
 - 핵심변수들 간의 clear and simple relation을 구명한다.
 - 이를 통해 현실을 설명한다.

☆ 자본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추상적 모델로 구축하고 논리적인 함의를 그려냄.

- ② 리카도의 방법론은 이후 모형, 수학 등의 방법(연역적 방법)으로 발전되면서 지금까지 지배적인 경제학 방법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

cf. 스미스의 국부론 구조: 연역법과 귀납법의 조합, 역사적 및 경험적 사례 풍부

4. Bullion Controversy (지금 논쟁, 1809~1811)

① 지금논쟁의 기원

: 기본적 문제 발단이 나폴레옹 '전쟁비용 조달'과 관련.

② Bank of England 설립(1694년)

: 잉글랜드 정부는 7년 전쟁 패배이후, 강력한 해군육성을 위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음. 기금 조성을 위해 잉글랜드 은행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를 모집함. 이로 인해 Bank of England는 특허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독점적 은행권 발권권한을 부여받음. 이를 통해 120만 파운드의 기금이 조성되고 절반이 해군 육성에 사용되었음. 그 반대급부로 주식회사인 영란은행에게 12년간의 영란은행권(bank note) 런던지방 독점적 유통 보장 특권(Charter)을 부여함. 아울러 은행권의 독점적 발행권으로 인해 지방은행은 준비금을 런던의 은행에, 런던의 은행들은 영란 은행에 예치하는 관행과 위계적 질서가 형성되었음.

- ③ 1797년 나폴레옹 전쟁(1792년~1815년)을 인해 Bank of England는 금태환 중지. 1817년 부분적 태환이 재개됨. 금본위제도의 특징은 은행으로 돌아오는 금 보유량 만큼 화폐가 발행된 것임. 시중에 유출되는 통화량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에 따라 달라짐. 그런데 은행이 금이 안 들어와도 화폐를 찍어낼 수 있게 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태환금지령을 내림. 리카도는 이에 문제를 제기함.

참고) 당시의 은행권은 금화저축에 대한 증서를 가리킴. 금태환은 즉 증서와 금을 교환함을 가리키며, 전쟁이 심해지면 사람들은 종이보다는 금을 갖는 게 안정적이라 생각하여 금과 증서를 바꾸고자 함. 이에 금과 증서를 바꾸는 것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금논쟁임.

- ④ Bullionist (지금주의자) : 영란은행 비판 → Currency School 통화학파
Anti-Bullionist : 영란은행 옹호 → Banking School 은행학파

→ Bullionist : paper money가 과잉, 태환 재개 주장

: 리카도는 금과 가격의 상승은 영란은행권의 과잉발행을 반영한다고 주장. 이는 경제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을 의미.

→ Anti-Bullionist

: 영국은행 이사들의 저작에서 나타나며, 은행권의 양이 금과 가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였음. 그들의 주장은 이른바 진성 어음주의(real bill doctrine)라 불림.¹⁾ 은행이 진성 어음에 대해 대출을 해준다면 그 어음은 거래 종결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상환된다는 이론임. 그러므로 유통 중인 통화의 양은 그것에 대한 수요와 정확하게 일치할 것임.

참고) 이러한 논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영국정부는 1810년 지금위원회를 구성하였음. 1809년 당시 시장의 금 가격(금괴)은 주조소(금화) 가격보다 15%높았음. 이에 영란은행 금화를 주조소 매입한 후, 녹여서 금괴로 만들어 시장에 팔면 이득이 됨. 따라서 시장의 금 가격과 주조소 가격이 일치하는 때까지 이런 현상은 계속 될 것. 이에 대한 해석은 상이하였는데 반지금주의자는 지금의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되어 조정될 거라 보았음. 그러나 지금주의자는 금태환을 재개하여 유통 중인 초과발행 은행권을 모두 회수할 것을 주장함. 이

1) 진성 어음이란 투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상업 거래에 자금을 대기위해 발행된 어음을 뜻함.

들의 논쟁은 은행법 제정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하였음.

✓ **1844년 Peel's Act(은행조례)**

- 고전파의 입장이기도 한 **Currency School**의 주장을 받아들임.
- 중앙은행에 대한 Ricardo 플랜에서의 핵심적 요소인 **통화적 활동**(은행권 발권의 통제)과 **은행적 활동**(예금과 대출의 통제)의 분리를 받아들임. 이에 따라 영란 은행은 두 부서, **Issue Dept.(발권부)**와 **Banking Dept.(영업부)**를 갖게 됨.
- 영란은행은 준비금의 최종적 보유자로서의 역할, 은행권에 대한 수요가 긴급하게 발생 시 수요를 즉각적으로 충족시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수행
- 지급준비율 100% (**준비금의 충분한 보유를 통해 신뢰를 확보, 금융위기 방지**)
- 1946년 국유화

5. **이윤론 - 초기 Ricardo 경제학 (☆☆☆☆☆)**

① 시대적 배경 : **산업혁명(1770년대~1820년대), 산업자본주의의 만개**

cf. 리카도의 경제학 정의 : 정치경제학의 주요문제는 지주, 자본가, 노동자 계층 간의 **'생산물의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 탐구

→ 리카도는 맬서스와의 편지(1820)

"대지의 소출, 즉 노동, 기계류, 자본을 함께 사용한 결과 대지의 표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3대 계급, 즉 토지 소유자, 토지 경작에 필요한 자본 기금의 소유자, 땀 흘려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경제학의 으뜸가는 문제이다." (1817 中)

② **곡물법(Corn Law) 논쟁**

- ✓ 나폴레옹 전쟁기간 중 대륙 봉쇄, 전후 1815년 곡물법 제정
- ✓ 전시가격의 일정수준 이상으로 곡물가격이 등귀할 때에만 수입을 허용
 - 국내곡물가격의 높은 수준 유지, 농업(지주계층) 보호
 - 반곡물법 동맹 (자본가와 노동자)

참고) 나폴레옹 전쟁 중 나폴레옹은 대륙봉쇄령을 내림. 밀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던 영국은 밀수입의 제한과 군수용 밀에 대한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밀 수요가 급증하게 됨. 이에 국내 밀 가격은 상승하였음. 이에 목초지에서 경작지로의 전환이 이뤄졌으며, 땅을 가진 지주는 밀 경작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대를 사상 최대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곡물가격의 상승은 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의미하며, 자본가에게는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윤감소현상이 나타남. 이에 곡물수입의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오랜 논쟁 끝에 결국 지주들의 승리로 끝나게 됨.

✓ **Malthus 와 Ricardo 간의 논쟁**

- 리카도는 곡물법 폐지를 주장
- 맬서스는 곡물법 유지를 주장